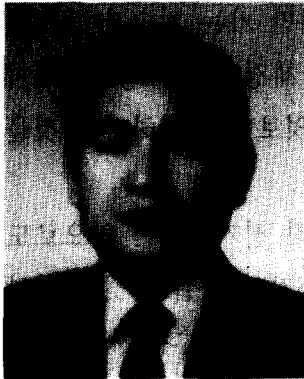


대 회 장 인 사 말 씀



(대한전기학회장 이 동 호)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우리 전기계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이곳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1993년도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및 추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사회의 구석구석에 개혁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우리 전기학회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술위원회의 주관하에 춘계에는 각 연구회별 분과학술회의가 차질없이 개최되었고 속초의 설악프라자에서 개최되었던 하계종합학술대회에는 회원 가족을 포함하여 1,4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총 387편의 논문들이 분야별로 발표되고 산, 학, 연 간의 활발한 토의 및 최신 정보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 전기학회 창설 이래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술 논문들에 대한 발표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학회 고유의 기능인 학술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학회 논문의 게재논문 편수를 년 초 월 13편에서 17편까지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이를 월 20편 까지 대폭 증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전기학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당면과제의 대처와 향후 세계적 기술의 동향을 예측하여 학제간, 국제간 협조

를 통한 기술의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있는 학회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의 결실이라 확신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심화되는 블록화 추세 속에 날로 높아만 가는 기술장벽을 뛰어 넘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기술혁신으로 세계적인 고유한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전기학회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회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오는 1994년에도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학회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회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제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1월 26일

회장 이 동 호